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은 수도자 조각

April 11, 2022 | 이한나 기자

Page 1 of 1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은 수도자 조각

세계적 공공미술 대가 우고 론디노네 개인전

강렬한 형광색 조합이 경이롭다. 노란 몸통에 파란 머리의 수도승 (blue yellow monk·2020), 하얀 몸통에 오렌지 머리의 수녀 (orange white nun·2020) 등. 키를 훌쩍 넘겨 3m에 육박하는 대형 조각상 5개가 전시장을 꽉 채운다. 광활한 대지안 속에 무심히 서 있는 영국의 스톤헨지와 질레 이스터섬의 모아이 석상이 떠오른다.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는 스위스 출신 현대미술가 우고 론디노네 (57)가 국제갤러리 서울점 (K3관)과 부산점에서 동시에 개인전 'nuns and monks by the sea'를 펼치며 돌아왔다. 2019년 국내 개인전 이후 3년 만이다. 그사이 그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

오랜시간 응축 돌에 재료 고대 신전 형상화 작업 서울 국제갤러리서 펼쳐

다. 베니스 비엔날레 기간인 이달 20일부터 스키투라 그란데 산 조반니 에반젤리스타에서 개인전 'burn shine fly'를 열고, 멕시코 타마요미술관, 프랑크푸르트 쉬른 쿤스트할레, 워싱턴DC 필립스 컬렉션 등 전시가 줄줄이 대기 중이다.

론디노네는 40여 년간 자연과 인간의 본질을 탐구해 왔다. 다양한 매체로 실험하고 일상의 단상부터 영원성같은 형이상학적 개념까지 다루며 강렬한 시



우고 론디노네 개인전 'nuns and monks by the sea' 전경. [사진 제공=국제갤러리]

각 작품으로 새로운 감각을 느끼게 하는 것이 특기다.

지난 10년간은 돌이란 재료에 집중해 왔다. 그는 돌에서 아름다움과 에너지, 구조적 특징, 표면의 질감, 그리고 시간을 모으고 응축하는 능력을 믿는다고 한다. 그 결과물은 돌로 만든 토템 (원시 부족사회의 상징물)에 가깝다.

하지만 이번에 소개된 'nuns + monks' 연작은 실제 돌이 아니라는 반전이 있다. 작은 석회암 모형으로 제작된 작품을 스캔하고 확대해 청동 주물로 다시 만들었다. 돌로는 내구성을 갖추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전시 공간에 까다롭기로 유명한 작가는 갤러리 벽면 전체에 시멘트를 거

칠게 발라 바닥과 벽이 단일한 콘크리트처럼 보이도록 주문했다. 바닥과 벽의 구분을 없애 관람객들은 작품에 일어나는 고요한 변화에 집중할 수 있다. 이번 아니다. 본래 자연광이 들어오던 전시장 전면 유리창도 차단해 일말의 색깔 변화도 막았다.

전시는 5월 15일까지. 이한나 기자